

한국의 대(對)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 요 한**

I. 서론

라오스는 동남아의 내륙국가로서 1997년 ASEAN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세기 프랑스 인도차이나 식민통치지역으로 편입되었고 1950년대에 독립하였으나, 1975년 공산화 이후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의 라오스는 점차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1997년 ASEAN 가입으로 고립·폐쇄정책은 종식되고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펼쳐나가고 있다.

라오스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소득, 빈약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2008년 현재 약 650만명) 등은 최빈국의 지위를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과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선진국 및 주변 아시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하고자 노력해왔다.

* 본고는 한국동남아학회 2007년 한·아세안 학자교류사업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교수 및 한국협력센터소장. prolao@hanmail.net

주요 선진 국가들은 물론 최근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라오스 원조가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라오스 내 주요 원조국가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라오스 ODA의 주변 환경과 의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대 라오스 ODA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라오스의 무역 및 투자 실적은 금액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 2007년 현재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액은 5,563만 달러, 수입액은 7,03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수출 138퍼센트, 수입 296퍼센트의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 라오스 ODA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규모와 금액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對) 라오스 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중점지원국가로 선정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¹⁾

한국의 대 라오스 ODA의 양적·질적 증가와 관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결여되어왔다. 라오스에 투입되는 ODA의 효율성에 대한 체계화된 평가 및 노하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본고가 대 라오스 ODA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최빈국 중의 하나로서 한국의 ODA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국가라는 점과 2005년 12월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과 ASEAN의 관계가 경제적 동반자로서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라오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이요한 2005: 172).

라오스는 또한 내륙국가로서 5개국(중국·베트남·태국·미얀마·캄보디아)과 접경하고 있어 동남아 질서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국가이다. 라오스는 관세인하를 단행하여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1) KOICA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전체 ODA 수여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KOICA 통계사이트: stat.koica.go.kr)

ASEAN Free Trade Area)에 참여하고 있다. 라오스는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가입을 위하여 무역 및 투자관련 분야의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세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ODA 정책을 통하여 우호적인 협력을 다지고 라오스와 한국의 외교적 관계를 긴밀화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는 기존 ODA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현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연구의 의미를 확대하고자 한국과 관련된 통계나 자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현지 정부 및 ODA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습득하여 인용하였다. 무엇보다 현장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필요시 설문지를 통하여 현지의 정서를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2장에서는 라오스의 ODA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즉 라오스 ODA의 중요성과 필연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정치경제적 상황과 변화 추이를 다루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한국과 주요국가 특히 일본과 중국의 라오스 ODA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과 중국은 라오스 ODA의 최대 공여국인 동시에 라오스에 대한 정치외교 및 경제적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 4장에서는 한국의 라오스 ODA가 효율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결론으로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II. 라오스의 주요 ODA 환경

1. 라오스 경제의 취약성과 ODA의 의미

라오스는 1975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준(準)봉건 및 식민 유산

을 폐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혁명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이르렀을 때 정부가 수행한 경제적 성과는 많은 부분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경제 운용은 취약했고, 국가경제는 여전히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였으며, 많은 개발프로젝트는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으로 만족스럽게 성취될 수 없었다(양승윤 외 2005: 243).

변화가 필요했던 라오스 정부는 1986년부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하였다. 이 개혁 정책은 신경제체제(NEM, New Economy Mechanism)이라고 불리어졌으며, 정부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행(移行)기의 주요 경제개혁은 국유기업을 매각하고 사유기업 및 영리활동의 법률적·제도적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었다(Varthana 2006: 17). 이 개혁 이래 라오스는 10년간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거시경제의 안정·공공 및 민간 투자의 증가 등을 가져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示顯)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동남아 경제위기 기간동안 라오스 화(貨—단위: 킵)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감소²⁾되었고, 현재까지 주변 국가의 경제 역시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오스가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혁개방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제적 활력을 가지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희소한 인구에 의한 시장의 협소함과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다. 라오스로 유입되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와 장벽이 철폐되고 있고, 라오스 정부의 WTO 가입 노력 등 전향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 대한 해외투자유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

2) 1997년 경제위기 이래로 라오스의 화폐인 Kip이 급격하게 평가절하(1달러 당 약 3,000 kip에서 약 10,000 kip으로 하락)되었고, 2009년 1월 현재 Kip의 가치(1달러 당 약 8,500 kip)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 노동집약적인 분야의 수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타 산업으로의 확장이라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이 인구가 희소한 라오스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라오스의 개발전략이 불투명한 가운데서 고용 창출의 부진,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라오스 경제를 정체시키고 있고,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구조적인 적자 형태³⁾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오스 정부의 재정수지에 있어서도 특별한 세원(稅源)이 없는 가운데, 국가 운영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1 참조>.

국내저축의 부재, 해외투자유입의 부진 등 자본 확충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오스로 유입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ODA는 라오스 정부에게나 사회,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2.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현황

2006년 유엔국가인적개발보고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최근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해외투자 및 사기업 등에 대해 세계에 개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으로도 개방을 병행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와 기술, 아이디어는 사회적인 변화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수명은 높아졌고, 출산율과 유아사망률은 감소되고 있으며 라오스 일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007년 6월 19일부터 7월 18일간 개최된 국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라오스는 평균 6.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3) 라오스의 수출 산업에 있어서도 주요 품목은 낮은 단가의 목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교역조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였고, 2007/2008년도에는 7.9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665달러이며, 농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7퍼센트, 제조업이 33.3퍼센트, 서비스업이 26퍼센트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EIU 2007).

2008/2009년도에는 8퍼센트의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은 728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리적·정신적 생활수준은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다. 2001년 약 30만에 이르던 빈곤 세대(하루 1달러 이하 소득)는 16만 세대로 감소하였고 이는 라오 전체의 17퍼센트에 달한다. 사회문화 및 인적개발 역시 다양한 형태로 진전을 이루었다. 초등학교 진학률은 1995년 38퍼센트에서 2005년 54퍼센트로 증가하였다.

<표 1> 라오스 최근 경제지표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5.8	6.9	7.3	8.3	7.6
재정수지/GDP	-7.1	-3.4	-3.4	-4.3	-4.2
소비자물가상승률	15.5	10.5	7.2	6.3	5.0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2007.

유아사망률은 1970~75년에 1,000명당 145명이었으나 2000~2005년에는 82명으로 감소하였다. 5세 사망률은 1,000명당 208명에서 87명으로 감소하였다. 평균기대 수명은 30년 전에 50세였으나, 현재는 61세에 이른다. 상수도 공급률은 전체 959,595가정 중에 62.7퍼센트이다.

현재 라오스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라오인민혁명당(LPRP, Lao People Revolution Party)⁴⁾이 의회와 정부를 장

4) 1930년 창설된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모체로 1955년 3월 결성되었다. 현 당서기장은 쉘말리(Chummaly Sayasone)대통령이며, 당원 수는 약 5만 명에 달한다. 당 중앙위 위원은 53명(정치국원 11명 포함)이다.

악하고 있는 일당체제로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존 펜스톤 2005: 217).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특별한 정치적 라이벌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속에서 라오스 정부는 최빈국의 지위를 탈피하기 위하여 개방경제와 외자유치 그리고 해외원조를 3대 발전 축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port, 2006). 2004년 미국으로부터 정상무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금명간 WTO 가입을 시도하기 위해 제조업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2006년 부가가치세 도입 안(案)이 통과되었고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안정을 기초로 시행되는 급격하고도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은 라오스 내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필요를 파생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를 내부적인 노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외 ODA의 유입을 통한 변화의 시도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Rigg 2005: 35).

3. 최근 라오스 ODA 동향

라오스는 냉전 시절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태국·베트남 등 주변 ASEAN국가들과 일본·호주·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선진국가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라오스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 시장인 태국과 베트남으로 광물·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있고, 관광 수입의 증가로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품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과도한 GDP와 같은 규모의 총외채 비중으로 인해 차관과 원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6년 11월에 개최된 라오스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 UN과 36개의 라오스 원조국 및 22개의 원조기구대표들은 라오스 정부의 제 6차 경제개발계획(2006~2010)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UN은 1.9억 달러, ADB는 2억 달러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오스 정부지출에 있어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크다. 19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라오스 정부의 총 지출에서 ODA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30~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1999/2000년도에는 ODA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2001/02년도와 2003/2004년도와 같이 ODA의 유입액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라오스 정부지출의 전체액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ODA는 라오스 정부예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ODA 유입 없이는 주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표 2> 라오스 정부 지출 내 ODA 비중

항 목	1999 /00	2000 /01	2001 /02	2002 /03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추정)
총 지출	341	406	330	438	354	514	682	792
ODA	171	147	93	165	96	177	278	284
ODA / 총지출(%)	50	36	28	38	27	34	41	36

출처: 라오스 재무부

이러한 ODA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당연히 ODA 공여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주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

용할 수 있다.

<표 3>은 양자간 ODA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수년간 라오스 ODA에 있어 최대 공여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최근 베트남과 중국의 대 라오스 ODA 공여가 대폭 늘어나 공여액 기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접경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라오스의 지정학적 가치 등 외교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개방화를 취하고 있는 라오스 시장의 경제적 선점을 고려하여 최근 적극적인 ODA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양자간 ODA 현황

국 가	금 액 (단위, 백만 달러)	구성 비율 (퍼센트)
일본	62.18	27.83
베트남	24.86	11.13
중국	21.16	9.47
스웨덴	19.79	8.86
태국	18.79	8.41
프랑스	17.68	7.91
호주	17.18	7.69
노르웨이	14.70	6.58
독일	6.26	2.80
룩셈부르크	6.26	2.80
대한민국	5.88	2.63
벨기에	5.26	2.35
뉴질랜드	1.78	0.86
핀란드	1.68	0.75
총	223.45	100.00

출처: Lao Committee for Planning and Investment (2005/2006)

라오스는 2006년 11월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의 원조공여국과 함께 원조 효율화를 위한 비엔티안 선언(Vientiane Declaration)⁵⁾을 하였

다. 비엔티안 선언 이후 원조 효율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는 국가사회 경제개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ODA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강화는 라오 정부와 원조 공여국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또한 불필요한 사업의 실시나 중복 사업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라오스의 거시경제지표 등에 대한 소개와 정부의 향후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소개 그리고 라오스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개발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III. 한국과 주요국의 라오스 ODA 현황

1. 한국 ODA의 현황

라오스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의 점진적인 제고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라오스를 ODA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고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한정된 ODA의 예산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 대륙별로 중점 지원국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는 최빈개도국으로서 ODA의 인도적 가치가 높으며 최근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라오스의 지정학적 위치가 내륙국가로서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우호적인 한·라오스 관계는 대륙부 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5) 비엔티안 선언(Vientiane Declaration)은 라오 정부의 선도적 역할, 라오 정부와 원조 공여국 간의 조율, 원조 사업의 조화와 간소화, 결과의 관리와 투명성 강화, 상호 책임 등을 명시하였다.

<표 4> 한국의 ODA 중점지원국가 현황

지 역	국 가
아시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중남미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동구·CIS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가나, 이디오피아, 케냐, 콩고, 탄자니아

출처: KOICA

2006년까지 수행된 한국의 대 라오스 ODA는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누적액 기준으로 2,900만 달러(2006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한국의 대 라오스 ODA 최근 현황

단위: 천 달러

사업 연도	금 액	라오스 순위
2003년	2,028.35	9
2004년	3,378.88	8
2005년	2,118.64	21
2006년	4,242.53	9

출처: KOICA

한국의 대 라오스 ODA가 증가함에 따라 라오스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제고(提高)되고 있으며, 더 많은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⁶⁾.

6) 라오스 정부의 투자기획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Planning)는 한국 ODA의 담당기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xternal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자금으로 2,270만 달러 규모의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설립프로젝트(LNUEP, Luangprabang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ment Project)를 비롯하여 최근 2,250만 달러 규모의 북부간선도로 건설프로젝트와 4,000만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 운동장 보수와 메콩강변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Vientiane Times 2008/03/17). KOICA도 2008년 250만 달러 규모로 라오스 고아 및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시설을 설립하고 특수교육교사들도 파견하기로 하였다(Vientiane Times 2008/04/29).

<표 6> 대 라오스 EDCF 지원 실적

승인연도	사업명	사업분야	금액(미, 천 달러)
2004	루앙프라방 국립대 설립 프로젝트	교육	2,270
2007	GMS 북부도로 개선사업	교통	2,240
2007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	환경, 위생	3,721
2007	비엔티엔 국립경기장	건설	300
계			8,531

출처: 수출입은행

원조액의 증가와 더불어 <표 6>과 같이 교육·교통·환경·위생·건설 등 라오스 ODA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ODA 사업의 증가와 다각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는 여전히 금액 면에서 일본의 1/10도 채 되지 않으며 중국, 베트남 등과 비교해도 20~25퍼센트에 불과하다. 원조규모와는 별도로

관인 KOICA와의 우선순위 사업을 매년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ODA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2008년 10월 9일, 라오스 KOICA 홍희수 부소장과의 인터뷰).

로 질적인 면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일본

일본은 라오스의 ODA 최대 공여국으로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으며,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 사전조사와 국가전략에 대한 분석, 경제수준분석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라오스가 동남아 내륙국가로서 5개 국가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라오스와의 선린관계가 접경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6: 16). 일본은 또한 메콩강 유역의 시장잠재력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메콩강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라오스를 핵심적인 국가라고 보고 있다(ASEAN 2004). 일본은 특히 라오스의 ASEAN 가입 이후 통합된 ASEAN 시장 내에서 라오스의 외교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Masahiro et al. 2004: 259-260)

<표 7> 일본의 대 라오스 ODA 현황

주요사업명	사업규모 (단위, 백만 엔)	원조형태
인적자원개발 장학생	123	무상
라오-일본협력센터 지원	403	무상
식량 원조	310	무상

출처: 일본 외무성

일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오스의 ASEAN 내에서의 관세인하

와 WTO 가입 과정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일본은 2003년 12월에 있었던 일본-ASEAN 정상회담에서 라오스에 대한 원조를 검토하고 앞으로 라오스가 대륙부 동남아 내에서 경제적 회랑(Economic Corridor)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DB 2005).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2008년 라오스를 포함하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기금은 도로의 보수와 학교 및 병원 건설 기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어지기로 합의하였다(Vientiane Times 2008/01/19).

이밖에도 일본은 라오스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ese Bank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400만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라오스국립대(NUOL, National University of Laos)에 라오-일본센터(Lao-Japan Center)를 운영하면서 라오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컴퓨터, 일본문화, 교환학생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라오스에 ODA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6). 첫째, 일본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관점에서 라오스 빈곤 감소를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지원한다. 둘째, 라오스의 자립 성장경제를 위한 기초분야 수립에 기여한다. 셋째,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과 사회적 용량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일본의 라오스에 대한 ODA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의 우선순위도 발표하는 등 세부적이고 치밀한 접근 가운데 OD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라오스 정부에 의해 발표되는 경제계획정책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Noda 2003: 154).

3. 중국

1970년대 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당시 라오스의 베트남에 대한 지지로 중국-라오스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대 라오스 ODA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대 라오스 ODA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3년간 총 7,300만 달러가 제공된 반면 2001-2004년까지는 4년간 1억 2,5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China Brief 2006/02/01).

중국의 대 라오스 ODA의 확대 배경에는 중국과 라오스 간의 경제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측면과 더불어 그동안 ODA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과 라오스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비록 일본이 오랫동안 ODA의 최대 공여국 이었고, 또한 태국이 라오스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공산국가인 라오스가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역사적·이념적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라오스가 같은 이념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 선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라오스 접근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도 자리 잡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라오스의 풍부한 임업과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중국의 ODA 유입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라오스 주요 북부도시인 루앙프라방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중국식 현대병원을 설립하여 기증하였다. 또한 중국은 루앙프라방 공항 증축을 위해 5,540억 Kip(5,700만 US 달러)을 투자하기로 하였다(Vientiane Times 2007/10/23). 공항의 증축은 외국 투자를 유인하고 관광산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라오스 정부의 최우선순위 사업이었다. 앞으로 중국 주요도시와의 직항로 개설로 정치경제적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의 수출입 은행 자금을 차입하였다.

중국의 ODA는 자금이나 건설의 형태뿐만 아니라 인력파견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중앙청년동맹(China's Central Youth League)은 2000년부터 라오스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다.

<표 8> 중국의 대 라오스 주요 ODA 사업 현황

주요사업명	사업년도	사업규모 (단위, 천 달러)	원조형태
중국-라오스 우정병원	2002-2003년	5,000	무상
모한-난룬(Mohan-Nanlun) 다리	2004-2006년	30,000	무상
방비엥(Van Vieng) 시멘트 공장	2004년	13,900	무상
남망(Nam Mang) III 수력발전소	2002-2006년	90,000	유상
칼롬 광산개발	2005-2006년	5,000	무상
		20,000	유상

출처: China Brief(2006).

<표 8>과 같이 중국의 대 라오스 ODA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멘트 공장, 수력발전소, 광산개발에 대한 ODA는 단순한 원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국의 자원 확보와 관련한 ‘투자’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Wong et al. 2006: 59-60).

IV. 한국의 대 라오스 ODA 효율화 방안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 라오스 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비엔티안 선언 서명국으로서 동 선언의 이행을 위해 원조효율화를 위한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ODA의 효율화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기존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성과와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 라오스 ODA 사업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1. 차별화된 라오스 ODA 전략 수립 및 실시

모든 국가에 대한 ODA 사업에서도 동일하겠지만, 라오스 ODA가 시행될 때는 항상 목적이 무엇이며, ODA 사업을 통해 한국과 라오스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가치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ODA 해당 사업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며,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지 전시 행정적이며, 실적 쌓기에 그치는 ODA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라오스의 가치에 상호 부합될 때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ODA 사업의 이익은 최대한의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원조의 수행은 라오스 내의 소수 특권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ODA 수행으로 인해 또 다른 왜곡과 갈등을 조장하고, 빈부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라오스에 대한 ODA 계획 수립시 한국이 지향하는 규범과 가치를 정립하고 라오스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동시에 국제적 규범과 룰을 준수하는 명문화된 원조 정책 문서가 필요하다. 한국 ODA 정책에 있어 늘 지적되어 온 것처럼(권을 외 2006: 167)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국별 원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라오스 ODA 효율화를 위해 중요하다.

<표 9> 라오스 ODA 효율화를 위한 제안

	기존 ODA	효율화 방안
ODA 사업 우선순위	공여국이 우선순위 결정	현지의 필요에 따른 정부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라오스 상호관계	일방적 관계	호혜적 관계와 파트너십
ODA 후속 방안	프로젝트 종료 후 철수	현지의 자급 및 자생적 결과에 초점

출처: 현지 담당자와의 인터뷰⁷⁾ 이후 필자 정리

주라오 한국대사관은 최근 개최된 사회경제라운드에서 과거 경제 개발 경험과 한국의 컴퓨터 기술 노하우를 이용한 ▲농촌개발 ▲교육 ▲IT를 3개 원조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명시한 방침과는 달리 이후의 사업들은 도로 건설, 운동장 보수 등으로 중점분야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점분야의 선정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원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ODA 사업이 라오스가 자립하고, 근본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원조사업에 대한 라오스 정부와 국민들의 의존적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단기적 성격보다는 사업 이후에 고용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과거 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의 원조 속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열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라오스에 시행되는 사업이 단기적인 효과를 벗어나 지속적이고도 영구적인 성과를

7) 현지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라오스 KOICA 사무소의 홍희수 부소장과는 2008년 10월 9일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의 Ms. Sisavanh Phanouvong과는 2008년 10월 10일에 각각 실시하였다.

기대한다면, 참여하는 라오스인들의 의식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ODA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조의 수혜자들이 ODA 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욕과 도전정신으로 라오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혜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일방적인 관계 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상호호혜를 기초로 협력의 관계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라오스 지역연구의 강화

한국의 대 라오스 ODA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라오스 현지에 대한 이해와 현지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국무조정실 2005). 라오스 지역에 대한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은 현지의 필요와 부합할 수 없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많다(재정경제부 2007). ODA가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것이 수혜국가인 라오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DA 사전 수요분석은 원조전략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원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재 개도국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KOICA 등)이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시행 이전에 라오스 내의 유관 기관과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과 더불어 한국 내 라오스 연구자 또는 라오스 내 한국 연구자와의

공동조사 및 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ODA프로젝트는 수혜국인 라오스의 상황이나 현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의 성격이 많았다.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라오스 현지의 필요와 전혀 무관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ODA의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루앙프라방대학 설립프로젝트의 경우 수파노봉 대학 내에 IT학과를 새롭게 개설하였으나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의 현실과 교육과정을 가르칠 만한 교수진과 기자재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T학과를 개설하기 전에 라오스 대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친숙도와 인터넷 사용률 그리고 교수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다.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상황, 사회적 변화 추이, 인적자원에 대한 시장조사 등에 대한 면밀한 지역연구가 선행되고 이후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와 계획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라오스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경제개발계획 보고서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현지에서 지향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러한 재원을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 등을 지원한다면 쌍방 간의 만족도와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지연구를 위해서 라오스 지역전문가를 포함하는 NGO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별 조사 및 부문별 조사에서 훨씬 더 세부적인 조사와 정보 입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ODA 운용체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⁸⁾. 라오스 정부 관료와 학자 등과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

8) 예를 들어 일본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국별 원조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OECF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별 원조연구회가 있으며,

여 ODA 사업이 현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욱 투입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예: KOLAO) 및 장기 거주 교민의 참여도 유도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상생(相生)의 사업과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ODA 기관 간 협력과 사후 관리

현재 한국의 대 라오스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KOICA, 한국과학기술협력재단(KICOS,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⁹⁾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도 라오스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 사업이 각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별 ODA의 수행으로 인한 사업의 부조화는 귀중한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원조 수혜국에게 오히려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외원조 전담기관이나 컨소시엄 등을 마련하여 부처 간 이견 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되, 지원사업간의 협력과 보완을 위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하에 JICA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연구반에서 각 분야별로 기초자료를 중점 검토하여 국별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25개 중점지원국을 대상으로 국별 원조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각종 조사사업의 경우에도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67개국 234건의 개발조사를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 KOICA의 경우 2006년도 개발조사 예산은 39억 원(3.2백만 불)으로서 KOICA 총사업비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9) KICOS는 2008년 5월 현재 라오스 국립대와 수파노봉대학에 각각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표 10> 라오스 ODA 관련 기관

협력 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무상원조	·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 통상부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출처: 외교통상부

루앙프라방국립대학 설립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이루어진 만큼 프로젝트 종료 이후 대학의 질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한국 ODA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앙프라방국립대학에 정부파견 기관 요원이 현재 전혀 없으며, 몇몇 민간 자원봉사자들만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KICOS에서 파견한 2명의 한국인 역시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단기간(2년 이내)만 활동하고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라오스 국립대(NUOL, National University of Laos)를 지원한 이후 대학 산하에 라오-일본센터(Lao-Japan Center) 등을 운영하여 이를 통해 일본어, 일본 문화 등을 라오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매년 정부 장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유학의 기회를 줌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라오-일본센터를 통하여 라오스와 일본 간의 인적네트워크의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혜를 입은 학생들이 라오 사회의 엘리트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일본의 대 라오스 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ODA는 후속 운영을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와 실시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표

10> 참조)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출입 은행의 EDCF 자금(유상원조)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조사 및 후속 지원은 KOICA의 무상원조로 진행된다면 ODA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며, 라오스 내의 한국 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대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기관과의 협력 또한 요구된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 Development Plan), ADB,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 등 국제기구 등이 라오스의 개발원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연구조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 ODA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DA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존에 완료된 ODA 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다. 이미 시행되었던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검증 그리고 사후 관리의 미비는 ODA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고의 낭비와 국가 이미지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원조는 수혜국인 라오스와의 중장기적 관계 개선에 별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원조사업의 성과마저 퇴색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ODA 사업 평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시행기관별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후평가는 기존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될 다양한 ODA 사업들의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고는 점증하는 추세에 있는 라오스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라오스 ODA의 현황과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본고는 라오스 원조의 효율성을 위해서 ODA의 질적인 측면의 제고를 중시하며, 기존 원조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조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최빈국으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라오스가 경제개방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가치의 재평가와 더불어 주변국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 간 ODA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동남아질서에 있어 라오스와의 선린관계를 통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ODA에 있어서도 라오스는 규모나 중요성 면에서 핵심 대상 국가이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ODA 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지적했듯이 라오스 ODA와 관련한 전략적 보고서나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자료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기관별로 독립적인 사업 시행으로 인해 라오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같이 라오스 국별 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ODA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1회성 사업이 아닌 후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라오스 내에서 한국의 위상과 입지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ODA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연구와 더불어 사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ODA 정책의 단절성과 이로 인해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는 오랜 기간 동안의 고립과 폐쇄정책을 버리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AFTA의 일원이며, WTO 가입 추진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라오스는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이 라오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있으나, 원천적인 자본과 기술, 노동력과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라오스 경제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ODA는 도덕적·규범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라오스에 대단히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ODA는 라오스 정부와 국민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빈곤층과 소외층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ODA의 대부분은 라오스의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고위정부관료와 재력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부를 안겨다 주고 있다. ODA가 라오스 고위층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다 공정하게 배분되며 최대한의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ODA로 변모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 라오스 ODA는 타국의 모델을 그대로 원용(援用)하거나, 천편일률적인 사업의 답습보다는 라오스 고유의 필요를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ODA 효율화의 가장 중요한 초석일 것이다. 또한 ODA의 결과로 라오스가 대외 의존이나 수동적인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가 자립하고 스스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용량을 넓혀나가는 데 한국 ODA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주제어: 라오스,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세안, 최빈국, 지역연구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05.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 권 울 외. 2006. “우리나라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국제협력 동향』 3. 한국국제협력단.
- 양승윤 외. 2005. 『캄보디아·라오스』. 서울: 한국외대출판부.
- 이요한. 2005. 『동아시아의 허브: ASEAN』. 서울: 두남출판사.
- 재정경제부. 2007. 『20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 제도 개선방안』.
- 존 편스톤 편. 2005.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정연식 외 역. 서울: 심산.
- ADB. 2005. *Southern Economic Corridor*. GMS Flagship Initiative, June.
- ASEAN. 2004.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Work Plan for the CLMV Countries*. Jakarta.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2006. *Country Profile: Laos*. London.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2007. *Country Report: Laos*. London.
-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6. *Japan's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Lao PDR*. September
- Krimmer, Christopher. 2005. *Bamboo Palace: Discovering the Lost Dynasty of Laos*. Harper Collins.
- Lao Ministry of Education.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port*.
- Masahiro Kawai and Shinji Takagi. 2004.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4: 255-280.
- Noda, Pamela J. 2003. *ASEAN-Japan Cooperation: A Foundation for East Asian Community*.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 Qian Xiaofeng. “China's Aid Flows Downstream to Laos.” <http://www.newsmekong.org/node/336/print> (검색일: 2008년 1월

21일)

Rigg, Jonathan. 2005. *Living with Transition in Laos*. London & New York: Routledge.

Sanda Simms. 2001. *The Kingdom of Laos*. RoutledgeCurzon.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 2006. *Lao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port*.

Vatthana Pholsena. 2006.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Singapore: ISEAS.

Wong, Jon, Zou Keyuan, and Zeng Huaqun. 2006. *China-ASEAN Relation: Economic and Legal Dimension*. World Scientific Center.

라오스 외교부(www.mofa.gov.la)

라오스 통계청(www.nsc.gov.la)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주라오스 한국대사관(lao.mofat.go.kr)

한국국제협력단(www.koica.go.kr)

(2008. 11. 17 투고; 2008. 12. 10 심사; 2008. 12. 30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iency Strategy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Lao PDR

Lee Yohan

(Souphanouvong University)

In recent Laos has attempted to change the fundamentally through the openness and economic reform policy. However, in spite of active and aggressive effort of government, Lao still couldn't get the position out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due to few population and rare natural resource. In these poor economic situ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ich flows into Laos has play an important role and has great influence in Lao country.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ODA toward Laos so far and also to look into the ODA of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so on. There is to a tendency that the Korea ODA scale toward Laos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so now it is very necessary time to evaluate about Korean ODA in Laos.

Therefore this paper observes the problems to have appeared in process of Korea ODA operation and tries to propose more efficient way to improve the outcomes. For the effectiveness of ODA, it would like to suggest firstly that it should establish more practical strategy for Lao country, secondly it needs to strengthen Lao area study to find the local need and demand more

adequately. Lastly even if ODA projects were completed and fulfilled, it is required to follow up the post-program to compliment and to maintenance the project.

Key Words: Laos, ODA, EDCF, ASEAN, LDC, Area study